월/요/광/장

박상호

문화시민으로 가는 길

21세기는 국가 경쟁력이 문화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문화의 시대' 라고 한다. 지난 참여정부는 '창의 문화 한국'에 대한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문화의 중심에는 창의성이 강조되며 창의적 능력의 정도에 따라 경쟁력이 결정된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참여정부가 제시한 '창의 한국' 프로젝트는 화려한 누각과도 같다.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백서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적 실용성을 강조하면서 예술적 창의성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같이 광의로 접근한 문화의 개념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발전 전략에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다. 하나는 지나친 문화콘텐츠의 다변화에 있다.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점이다.

전자의 경우 문화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그 중심에는 예술의 영역이 존재한다. 예술은 문화상품의 소스(source)가 되고, 이 소스를 문화상품화 하는데 요구되는 주변 관련 영역들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광주문화중심도시 건설이라는 과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술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궤도수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가 국내 타도시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한 것이 무엇인가? 비엔날레만 해도 부산 비엔날레, 대구비엔날레가 열리는 상황이다. 서울·경기지역의 빈번한 국제적인 전시회 개최 속에서 얼마나 차별화를 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예술문화를 중심으로 초점을 모아야 한다. 사실은 예술의 영역만 해도 시각예술, 청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구분되는 다양한 컬러의 문화 코드가 존재한다. 예술중심으로 재구성하더라도 결코 왜소하지 않다. 예술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거나, 예술과 다른 문화요소들이 만나면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여 시너지효과는 무궁무진하다.

후자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제안한 '창의 한국'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현 정부가 문화 국가를 이룩하겠다며 추진하는 제반 정책들로도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예술문화의 발전은 문화 향유자에 의해 결정된다. 즉 문화 소비자층이 얼마나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화향유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관심의 초점이 어느 문화코드에 모아져 있는지가 문화발전의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인인 것이다.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민족은 소비가 아닌 문화의 향유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멋을 아는 사람들이며, 감성이 풍부한 그들의 삶은 다분히 낭만적이다. 러시아에서의 태교 중의 태교는 '푸시킨'의 시를 들려주는 것이다. 그들은 '푸시킨'의 시 한편을 읊으면서 행복에 취한다.

일본인들의 문화향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단편적인 주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몇 년 전에 도쿄 우에노 공원 내에 있는 모리미술관에서 겪은 일이다. 호안 미로전이 열리는 주말이었다. 미술관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린 지 2시간 만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미술관 안에 들어서서야 왜 그토록 오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다. 평범한 중년, 노년층의 감상자들이 한 작품 앞에서 보통 5~10분 동안 진지하게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이 동행했던 우리 미술대학생들은 2시간 기다려서 입장한 후 20분 내에 감상을 마치고 미술관을 나왔다.

일반시민들의 문화향유실태는 어떠한가? 단편적으로 문화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하여 문화를 상품화하려는 목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 순수문화향유에 대한 가치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대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다양한 스펙드럼을 이루며 고급문화는 존재하고 있다. 고급예술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예술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학교교육의 붕괴는 고급예술문화의 향유에 대한 무관심과 더불어 문화산업발전에도 결국 한계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산업은 자양분이 풍부한 토양 위에서만 최상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지만 관객은 없다. 관객 구걸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결단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급예술문화를 향유하는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갈수록 그 기대에 부응해가며 예술문화의 수준은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조선대 미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학점 퍼주기' 대학·학생 모두에게 毒이다

국립대학의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의원이 전남대와 제주대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의 전공과목 평균 성적은 A학점 43%, B학점 30%였다. 제주대 역시 A학점이 46%, B학점 34(%)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8명이 B학점을 받은 셈이다. 특히 전남대 간호대와 제주대 사범대, 교육대는 B학점 이상이 90%를 넘었다.

이 같은 학점 거품은 비단 이들 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정부의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통해 드러난 지난해 1학기 전공과목에서 A학점을 받은 수강생 비율은 서울대가 45.4%, 고려대 37.8%, 연세대 41.2%, 이화여대 36.6%였다. 일부 대학에서는 10명 중 7~8명에 달했다. A학점이 지니는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학점 인플레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낮은 학점으로 인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교수들의 걱정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물론 교수들의 이런 노파심을 이해 못 한 바는 아니다. 하지만, 학점 퍼주기가 결국은 학생과 대학에 약(藥)이 되기보다는 독(毒)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점이나 부풀리는 편법에 익숙한 대학과 학생은 경쟁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종국에는 그 존재가치마저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미 대학 학점을 신뢰하지 않은 지 오래다. 기업들이 명문대만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학점 거품이 결국은 학생과 대학에 부메랑이 돼 학교 존립기반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취업에 유리한 '학점 스펙'을 만들어주기보다는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급선무다. 그러려면 교수들부터 먼저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이다.

'가정형편' 학업 포기 호남지역이 최고라니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가정 형편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고교생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학생비율이 52.3%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광주는 49.7%로 2위, 전북은 44.7%로 3위를 나타냈다. 이는 전국 평균 29.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학업 중단 학생 1370명 가운데 681명이 가정 형편을 이유로 학교를 떠났고, 전남은 1580명 중 826명이 학업을 포기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증가 추세라는데 있다. 전남은 2008년 보다 무려 9.0%나 늘어났고, 광주는 5.1%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4.6%를 앞지른 것이다.

호남지역에서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업을 그만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무관치 않다. 특히 전남은 경제적인 여건이 열악한데다 고령화와 젊은이들의 이농에 따라 조손가정과 편부모 가정이 많은 게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려운 가정 형편 또는 결손 가정에서 달리 선택의 길이 없다는데 있다.

학업 중단은 그들의 연령에 비추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경우 범죄 내지 빈곤층 확대로 연결돼 사회 불안 요인이 가중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학교나 일자리로 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거나 자구책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 역시 이들을 돕는 후원 및 연계 역할 등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이근우

법학전문대학원생 지도관 해 보니

지난 7월과 8월 각각 2주에 걸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중인 두 학생의 실무수습을 지도하였다. 유난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무실에 나와서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등 열심히 실무수습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처음에 법학전문대학생들의 실무수습 지도를 맡기로 하면서 그 수습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았으나 별 묘안이 없어서 종래 사법연수생들에게 하던 방식대로 소송기록을 검토시키고 준비서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었다.

다만, 아직 법률지식이 많지 않은 대학원 2학년 학생들임을 감안하여 복잡하게 사실관계가 얽힌 소송을 피해서 비교적 단순한 법률문제를 가진 소송기록을 검토하도록 배려하였다.

학생들을 맞으면서 수습장소로 서울의 유명 로펌이 아닌 지방의 로펌을 택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작은 사무실에서 수습하는 것이 변호사 사무실의 실체를 파악하기 쉽다고 생각했다는 대답이었다. 일리 있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서울의 유명 로펌들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무수습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터라, 학생들이 땀흘린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거둘 수 없었다.

그러고 보니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족하여 1년6개월이 지나고 첫 수료생 배출이 1년6개월 앞으로 닥쳤는데, 법원이나 검찰 그리고 변호사회는 이에 대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최근에야 이들 첫 수료생들의 변호사자격시험이 2012년 3월에 있고 4월에 합격자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들은 대개 최소한 법과대학 4년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수습 2년을 마치고 나서야 법조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법과대학 4년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사법연수원 수습 2년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생각해보면 사법연수원 교육 없는 변호사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무교수님 등이 최선을 다해 충실한 교육을 하시겠지만, 사법연수원 수습을 대체하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3년의 과정이 아무래도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최소한의 실무수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시급히 요청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인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생각해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전에 없는 대혼란이 코앞으로 닥쳐왔는데 대비는 전무(全無)하다"는 우려를 어떻게 기우로 끝낼 수 있을까?

실무수습을 마친 두 학생 중 한 명은 외고 시절 중국어를 전공하였고 다른 한 명은 대학에서 철학과를 전공한 재원들이었다.

이들을 보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의도한 다양한 전공자들의 변호사화는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물론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지만 말이다.

이들이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하는 날 한국의 법조는 세계 속의 법조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법조인은 법조라는 울타리를 넘어 법조유사직역(변리사, 세무사 등)을 흡수하고, 행정부의 법무담당은 물론 기업자문, 기업경영, 국제기구 등에 다양하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김한필

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바라며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식산자락에 자리한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1992년 광주시 농성동에 있던 당시 농촌진흥원을 지금의 자리로 옮기면서 어떻게 이렇듯 기막힌 자리를 골라 이주했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풍수지리설에서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가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배산임수(背山臨水)형'이다. 뒤로는 해발 292m의 밥식 자 식산(食山)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호남의 곡창으로 이름이 드높던 나주평야가 비단처럼 펼쳐져 있으니 농업기술원의 터로서 그야말로 제격이 아닌가.

농업기술원에 막 들어서면 5자 남짓한 자연석에 '기술보국(技術報國)'이라는 한문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여기서 눈을 치켜뜨면 푸른 잔디밭 너머로 덩그렇게 높은 곳에 옅은 노란색 3층 건물의 본관동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좌우로는 대강당, 농민교육관, 과학관, 친환경 종합전시관 등이 부지와 조화를 이루며 여유롭게 서 있다.

원내에는 매화, 이팝, 오엽송, 향, 금목서, 은목서 등 40여종의 크고 작은 나무들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들중엔 정원지기를 하는 나무도 있고, 울타리를 자처하는 나무도 있고, 화단 주인 행세를 하는 나무도 있다. 많은 나무들 중 백미는 아무래도 금송과 가시나무가 아닌가 한다.

이렇듯 아름다운 기술원에서 '유기농 생태전남'의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제9회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그린 농식품 행복한 소비자'란 주제로 화려하게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생명예술관 등 7개관에 농업예술 등 20개 분야의 다양하고 이채로운 볼거리가 전시되고, 향주머니 만들기 등 17개의 체험마당과 타악공연 등 7개의 공연마당, 다문화 가족문화 발표회 등 2개의 참여마당이 내방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을 돋우게 된다.

특히 시·군별로 엄선한 9개 단체의 향토음식 판매장은 관람객들에게 60여종의 다양하고 맛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시·군별로 21개 부스에서는 친환경인증 물품 9만 여종이 판매되는가 하면, 90개업체 120개 코너에 전시되는 1042점의 최첨단 농기계 및 친환경 에너지 기기는 우리 영농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이번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전남도를 친환경 유기농업의 본가이자, 생명식품산업의 메카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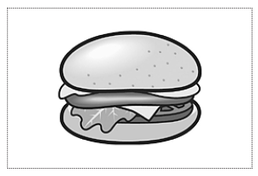
작금의 세계는 바야흐로 WTO체제하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를 맞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농업은 늘 수세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2년 '국제 농업박람회'의 프레(Pre) 박람회 성격을 띠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국제 농업박람회'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 농업박람회'의 주최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한편 우리 농업도 국제농업무대에서 당당히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성원과 관람, 지도편달 부탁 드린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리담당〉

無等鼓

평양 햄버거



주문하면 곧바로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는 미국 문화의 핵심코드다. 하지만 그 뿌리는 몽골계 유목민 타타르족의 고유 음식에 두고 있다는 게 통설이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말을 타고 이동하던 그들이 안장 밑에 넣어 연하게 만든 고기를 다른 양념과 섞어 먹은 게 시초라는 것이다. 칭기즈칸이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때 애용하던 전투식량이 그 원형이었던 셈이다.

몽골제국의 러시아 침공 이후 이 '고기를 잘게 다진 육회'는 타타르 스테이크(tartar-steak)라고 불렸다. 이 스테이크가 상인들에 의해 한자동맹의 주요 항구였던 독일 함부르크(Hamburg)에 유입됐고, 유럽인들의 이민과 함께 다시 미국에 전해져 오늘날의 햄버거가 탄생한 것이다.

자동차의 보급과 함께 진화를 거듭한 햄버거는 대량 생산에 의한 가격 경쟁력과 싼값에 고열량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편리성 덕분에 단기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업계 1위인 맥도널드는 전 세계에 2만5000개 이상의 매장을 두고 있을 정도다.

자본주의의 상징인 햄버거가 북한 평양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한 싱가포르 회사가 북한 당국과 계약해 평양시내 김일성대학 부근의 금성 네거리에 '삼태성 청량음료점'을 열었다. 이곳에선 '다진 소고기와 빵'(햄버거), '구운빵지짐'(와플) 등을 '평양사이다'나 '금성생맥주' 같은 가벼운 음료와 함께 팔고 있다.

최근에는 한 놀이공원에 24시간 문을 여는 분점을 냈는데 전날 예약해야 겨우 맛을 볼 수 있고, 심야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된다고 한다.

햄버거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junk food)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이 벌써부터 걱정된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조산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대책 서둘러야

최근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조산아를 낳았다. 이제 겨우 생후 4개월 됐는데 폐질환과 뇌출혈, 망막증 등 이런저런 많은 질병에 시달리며 치료하느라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닐 지경이다. 아기는 정상체중의 3분의1에 불과한 1kg대의 몸무게로 26주 만에 태어났다고 한다. 병원에서 퇴원해 생후 3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가 미숙아 망막증 증상을 보여 수술을 받아야 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병원비 부담이다. 생후 73일간의 인큐베이터 입원비가 500만원이고, 면역력이 약해 한 번에 100만원이나 하는 약물 치료도 받았다고 한다. 수술비 등을 포함하면 지난 4개월간 치료비로만 1000만원이 넘게 들었다니 웬만한 서민은 엄두도 못 낼 액수다.

현대 여성은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인공임신 시술이 늘어나면서 미숙아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적 지원은 너무 적다. 조산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들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성열봉·목포시 온금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